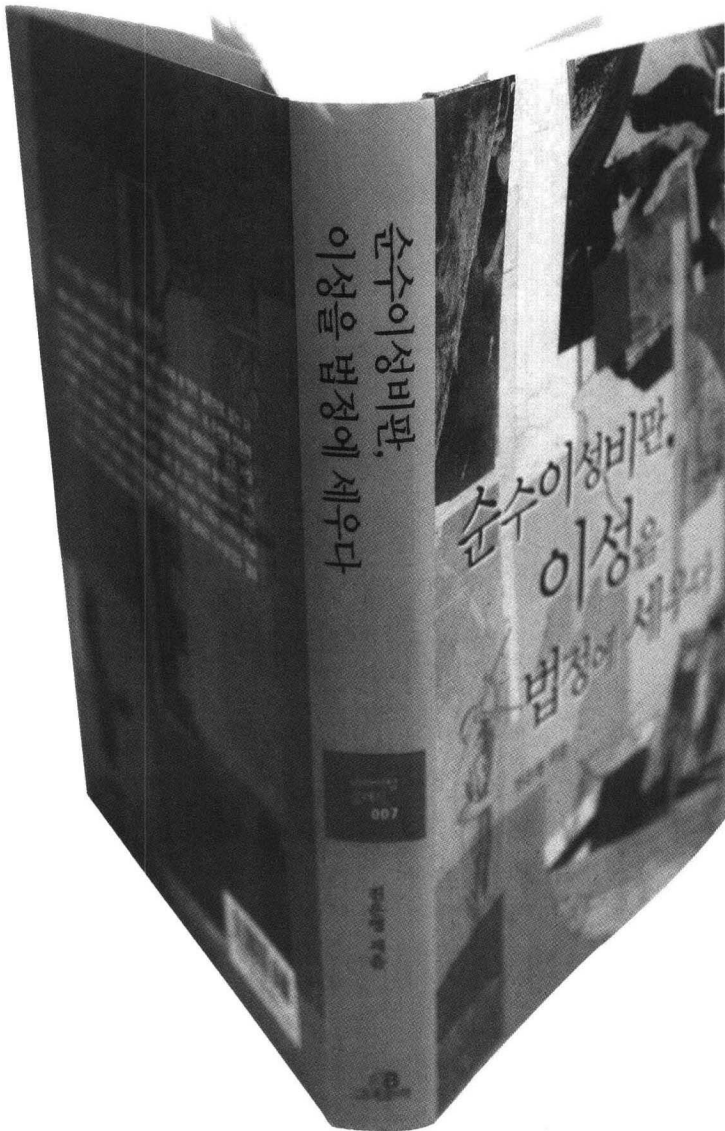


난해한 그림 같은, 난폭한 애인 같은 칸트

진은영의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



《순수이성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 진은영 지음 | 그린비 | 296쪽 | 값 12,900원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현타 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칸트가 말하는 칸트가 아닌, 칸트의 적들 혹은 벗들이 말하는 칸트. 내가 접해온 칸트는 언제나 따옴표 안에 숨은 칸트였다. 칸트는 이러저러하다는 설명보다는 그저 칸트는 무진장 어렵다는 소문, 이것이 칸트의 첫인상이었다. 칸트를 읽지 않은 나조차도 귀가 따갑게 들은 칸트표 송고미. 저 유명한 송고미 분석은 칸트 자신의 철학에도 해당되는 것 같았다. 세계 철학사의 술한 빅매치에서 칸트는 단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맑스와 니체를 거쳐, 데리다와 들뢰즈 이후까지, 칸트와 대적하지 않은 위대한 철학자는 없었다. 용케도 칸트를 요리조리 피해가던 어느 날, 한 시인이 칸트를 '다시 쓰기'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애잔한 감수성으로 뚝뚝 뭉친 그 예민한 시인이 저 딱딱한 칸트를 강요하다니. 시인과 칸트는 댄서와 판사만큼이나 언밸런스 커플이지 않은가.

그러나 또다시 따옴표 안의 칸트와 만나는 것은 웬지 뒤통수가 따가운 일이었다. 이제 그만 타인의 따옴표 안에 갇힌 사상이 아닌, 아무리 어려워도 내 힘으로 더듬더듬 원전을 읽어야겠다는 작심삼일식 결의가 내 안에서 완강히 저항했다. 그러나 칸트에 따옴표를 친 시인을 향한 이끌림이 따옴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이기고 말았다. 유희를 이기지 못하고 1장을 넘기자, 화려한 칸트의 명성에 가린 칸트의 힘겨운 삶이 펼쳐졌다.

내가 당구를 쳐서 학비를 벌었던 가난한 청년기, 시인 레싱의 비웃음을 산 칸트의 첫 번째 논문에 얽힌 아프고도 코믹한 사연, 오랜 침묵 끝에 쇠일곱 살 늦깎이로 첫 저작을 낸 칸트를 둘러싼 엄청난 찬사와 비난, 괴테조차 칸트의 열성팬이었지만 칸트가 결코 만나주지 않았기에 괴테가 진노했다는 에피소드. 이 모든 참신한 일화들보다 감동적으로, 머나먼 칸트를 살갑게 느끼도록 해준 것은 다음과 같은 시인의 메시지다. "바로 그의 평범함 때문에 그가 성장하고 있던 시절에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온 적이 없었다. 그를 착각에 빠지게 했을 칭찬의 말도 그를 방황하게 했을 비난의 말도 없었다. (...) 그에게 말을 건 것은 그의 일뿐이었다. (...)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다 자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정복될 수 없었다."

내가 칸트의 입구에서 서성이기는커녕 입구 근처에도 가길 꺼려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초급에서 중급의 문턱으로 넘어갈 때 매번 좌절하는 일본어처럼, 필요한 줄은 알지만 아예 시도도 안 해보는 스페인어나 불어처럼, 칸트는 나를 '백치'로 만드는 철학자였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쉽게 백치가 될 때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와 철학을 공부할 때다. 외국어와 철학은 기존의 모든 지식의 축

적을 제로로 돌린 채, 모든 과정을 걸음마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요약형 정보, 이미지형 정보에 매혹되기 쉬운 것도 아마 그 고통스러운 배움의 과정, 백치 되기의 굴욕을 견뎌야 하는 그 긴 마라톤을 훌쩍 건너 뛰고픈 '잔머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 권으로 끝내는' 식의 정보요약형 공부는 나를 끝내 바보로 머무르게 했다.

오랫동안 백치인 채로 느릿느릿 어둠을 헤쳐 나가는 우직하고 미련한 과정을 이겨낼 잔머리는 세상에 없다. 진정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리기 위한 배움의 과정에서만큼은 완전히 바보가 되어야 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어려운 칸트가 순순히 맨얼굴을 드러내겠는가. 다만 거의 숭고미에 육박하는 난해미를 자랑하는 칸트를 향해 떠나는 그 막막한 여행에서, 친구가 필요할 뿐이다. 칸트를 향한 험난한 여정에서 이 책은 내 무지와 게으름을 타박하지 않고 찬찬히 등을 토닥여줄 든든한 친구였다.

이제야 행복한 바보가 된 내가 엮본 칸트는 신/이성/경험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번민하고 있었다. "인간의 이성엔 신의 심판도, 경험이라는 배심원의 판결도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법정을 세워야 한다. 이성에 의한, 이성을 위한, 이성에 대한 재판소. 우리가 그런 재판소를 가지게 될 때만 우리는 신과 자연 사이에서 인간의 고유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것만이 철학이 할 일이다. 칸트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성이 그의 변론 대상이었다면 그가 싸워야 할 적은 신의 권위와 경험의 참정권이었다. 신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바로 계몽이었다.

내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칸트가 벌인 경험론과의 전투였다. 경험의 눈가리개, 경험의 참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금 내게 필요한 자유의 이름은 바로 경험으로부터의 자유다. 모든 경험은 진실한만큼 비경험자에 대해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다. 그리고 경험은 나로 하여금 자아의 감옥에 갇히게 하고, 더 넓은 비경험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쇠창살이기도 하다. 계몽을 지체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성의 결핍"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 이것이 바로 계몽의 에너지다. 이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무기가 감성이라니, 이 또한 매력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이성이 과연 어디까지 완벽해질 수 있을까. 칸트는 이성의 극한을 철저히 실험해 봄으로써 이성의 오류와 한계 또한 투명하게 응시했다. 이성의 가능성을 맥시멈으로 밀어붙

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이성의 한계를 조용히 응시하는 칸트의 표정, 이것이 내가 엮본 《순수이성비판》의 내면이다.

내 눈에 비친 칸트의 이미지는 이수라장이 된 철학 경기장의 지혜로운 심판관이다. 운동경기를 볼 때, 나는 언제나 튀는 선수들의 현란한 움직임에 마음을 뺏겼다. 그러나 지금은 스코어를 만드는 순간보다도 스코어를 가능케 하는, 혹은 좌절시키는 다양한 힘들의 충돌을 응시한다. 서른 즈음에야 보이기 시작한 운동경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심판이다. 맑스, 프로이트, 니체가 누구나 매혹당하기 쉬운 철학의 MVP라면, 칸트는 메달도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하는, 그러나 그 없이는 철학 올림픽 자체를 진행시킬 수 없는 현명한 심판이 아닐까.

칸트는 난해한 그림처럼, 난폭한 애인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철학자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림 앞에서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서 있지 않고 어떻게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난폭한 애인이 주는 고통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버겁지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그 애인이 없다면 삶은 끝내 무미건조해진다. "반드시 고통의 문틈으로만 쏟아져 들어오는 즐거움", 이것이 난해한 철학과 난폭한 애인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다. 언제부턴가 지금 당장 감당하지 못하는 책은 책장에 꽂아놓기를 꺼렸던 내가, 오늘 두 권의 책을 주문했다. 1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고 매번 숨비꼭질을 하던 두 사람의 철학자, 칸트와 헤겔의 책을. **출판사**